

“군민을 대신해 진실을 확인하고 전파하는 올곧은 언론이 되길”



강화군수 유 천 호

강화군수 유천호입니다.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결실이 가득한 추석 명절입니다.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강화투데이의 창간을 7만 강화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언론의 비판보도는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군민은 진실에 다가서야하고, 언론은 군민을 대신해 진실을 확인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강화투데이가 군민을 대신해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아울러, 강화군의 변화하는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홍보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강화군은 안정된 방역 관리와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접종률로 집단 면역에 한걸음 성큼 다가섰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정부의 방역 조정 시 추가적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화투데이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직 사실과 진실보도로 독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론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방면에서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지역 정론지로서 냉철한 비판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특성을 살리는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화투데이 창간 祝 辭 -

강화군의회 의장 신 득 상

안녕하십니까! 강화군의회 의장 신득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훈훈한 미담들을 전달하며 우리지역을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내줄 강화투데이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봉기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응원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론이바로 서야우리사회의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만큼, 강화투데이가 풍요로운 가을 황금들녘처럼 군민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의 아주 작은 곳까지도 살피시어 7만 군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군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다면, 지금의 어려움 또한 잘 이겨내어 다가오는 워드코로나 시대에 한단계 더 큰 성장과 도약으로 강화의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힘차게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모처럼의 긴 연휴가 일상으로 힘들고 지친 우리 군민들께 휴식과 삶의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아무쪼록 7만 강화군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의 왕성한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합니다.
 강화투데이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변하고 지역사회에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며,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시기이지만 귀사가 공정한 언론으로서 강화군청·강화군의회·강화

강화투데이 창간 축사 및 추석 인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 준 영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화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강화투데이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화군민들의 목소리와 진실된 뉴스를 전달하고자 노력해 주실 강화투데이 신봉기 대표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만큼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주민들의 삶부터 동네 구석구석의 소식까지 꼼꼼히 챙기는 지역 언론을 통해, 저는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들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의 의정활동을 지역 언론이 주목

하고 주민분들에게 알려질 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역 언론은 우리 동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특히 우리 강화군의 문화유산, 볼거리, 즐길 거리와 크고 작은 소식들을 널리 알리는데 앞으로 강화투데이가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강화에는 가는 곳마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분들이 강화를 찾을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화투데이를 비롯한 지역의 많은 분들과 늘 소통하고 생생한 여론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화투데이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더욱 번창하여 언제나 7만 강화군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사촌 같은 언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화를 위해 강화투데이를 창간하신 신봉기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마저 풍성해지는 가을,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 모두 보름달처럼 밝고 환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투데이 창간축사



박희제
(전)동아일보 기자/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들이 매일 탄생하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사건과 에피소드가 일상에서 넘쳐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뉴스의 폭주 속에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세상의 진실을 전하는 뉴스의 비중은 줄어들고 ‘가짜 뉴스’와 ‘대안 사실’이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진실의 쇠퇴와 탈진실의 시대를 한탄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대표되는 활자매체나 방송매체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플랫폼이 대세를 형성하면서 ‘진짜 뉴스’가 보석처럼 귀해졌습니다.

미디어 세계의 대격변 와중에 신문과 인터넷을 병행하는 매체를 선언한 강화투데이

창간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언론 생태계가 크게 흔들리며 요동치고 있어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성적 논의와 공론의 장보다는 두려움과 분노, 적개심, 흥분이 여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정보의 민주화가 이뤄지긴 했으나 가짜뉴스의 확산으로 전문지식이 대중지성으로 대체되고, 허위정보와 상대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종이 신문을 발행하려는 일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처럼 고행의 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미디어 세상을 향해 거보를 내딛는 강화투데이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역사문화의 보고인 강화도에서 발행되는 다른 언론사들과 건전한 경쟁과 유대 관를 형성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AI)이 깔끔한 필체로 기사 작성을 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사는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기본입니다. 해외 언론 사례를 통해 정론지로 나아가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문의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1,000만 부 가까운 세계 최대 부수를 발행하는 요미우리, 아사히 등의 유력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문은 사회부 정치부 문화부 등 한 부서에만 70~100명씩 기사를 두고 있어 기사가 나면 독자들 사이에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단 기사이지만 철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고, 기사 출고 이전에 교차검증을 체질화하고 있어 한국 언론계 실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의 성공 비결은 너무도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왕도라고 단언할 수 없겠지만 사실에 충실한 기사를 꾸준히 독자에게 선보이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강화투데이가 창간호에서 이를 약속했기에 초지일관할 것이며, 조만간 강화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온·오프라인 언론사로 굳건히 자리 잡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나날이 진화하는 매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강화도의 나침반이자 양식의 등불로 칭송받는 언론으로 나아가려는 여정에 힘찬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불은면 이장단, 명절 앞두고 자체방역단 구성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예방

강화군 불은면 이장단(단장 박병일)은 지난 3일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방역단을 구성하고 방역활동에 나섰다.

이날 이장단은 공공시설,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펼치고, 마을방송으로 주민들에게 개인방역수칙을 홍보했다. 박병일 단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방역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명희 불은면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방역 작업을 추진해주신 이장단에 감사드리며, 주민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대해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강화군 편집 최벽하 기자

강화군, 추석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강화산 둔갑 농산물 집중 단속, 농민과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군(郡)은 추석 대비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농산물품질 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17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 생산, 판매업소이며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대상품목은 제수용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혼동우려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농산물 품질 보호와 정직하게 땀 흘린 강화농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지산 농산물이 강화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강화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강화군 편집 최벽하 기자

강화읍 강화중앙교회, 이웃사랑 성금 기탁 성금 300만 원 전달



강화군 강화중앙교회(담임목사 장영철)는 8일 강화읍 (읍장 주우종)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장영철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화중앙교회는 평소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장영철 담임목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음을 모아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우종 강화읍장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리며, 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출처 강화군 편집 최벽하 기자

강화읍, 기관단체 “사랑의 물품 나눔”실시 추석 명절 맞이하여 온정의 손길 모아



강화읍 이장단 외 6개 단체는 지난 10일,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김 200박스, 라면 214박스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마련해 강화읍사무소에 전달했다. 대한노인회강화읍분회, 강화읍이장단, 강화읍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체육진흥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심하여 물품을 기탁했다.

기탁한 물품들은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계층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고루 배부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김상배 이장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이 마음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우종 강화읍장은 “추석을 맞이하여 온정의 손길을 모아주신 강화읍 기관 단체에게 감사의 드리며,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함께 사는 따뜻한 강화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 최벽하 기자

이웃사랑을 베풀어주신 각 읍·면별 기관 단체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 귀농·귀촌 꿈을 향한 지원 강화

하반기 귀농·귀촌 창업심화교육 교육생 모집

인천시가 귀농·귀촌의 꿈을 향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5회 20시간 과정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심화된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귀농 창업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다 심화된 품목별 영농 기술교육을 통해, 도시를 떠나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 온라인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인천광역시민 4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접수 등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ncheon.go.kr/agro)를 참고하거나 지원기획팀 (☎032-440-691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인천시 편집 최벽하 기자



인천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 노란신호등으로 전면 교체

- 9월~12월까지 187개교 교차로 346개소에 노란신호등 교체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410개소(54%)에서 756개소(100%)확대 설치
-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 대폭 향상, 보호구역 식별용이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경찰청과 협업해 관내 초등학교 등 187개교 교차로 346개소에 교통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해 차량속도 30km 서행과 보행자 주의환기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천시 편집 최벽하 기자

정하영 김포시장, “10월부터 일산대교 무료통행”

“이번 아니면 다시는 기회 없다... 불공정, 불평등 차별 반드시 해결”



김포시(정하영 시장)가 3일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교통기본권 실현을 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합의하고 오는 10월부터 무료화하기로 했다.

김포시 걸포동 소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열린 이날 브리핑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본권과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공익처분 등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무료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 최소화 및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대책 마련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대한 합리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법은 민자사업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기반시설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주)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공익처분은 경상남도가 2016년 2월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위해 신청한 바 있으며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2017년 양측의 이해관계 조율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됐다.

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포대교는 서울 시내 한강다리 사이 평균거리인 1.6km보다 5배나 멀어 대체도로로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유료도로법상 일산대교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도로”라면서 “한강 유일의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를 무료화 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번에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이 무산되면 다시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의 추진 상황과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시장은 “경기도가 확실하게 앞장서준 만큼 김포시가 이를 견인하고 모든 노력을 쏟아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열차가 후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통행료 무료화로 김포시민이든, 수도권서부 주민이든, 국민 모두가 일산대교를 마음 편히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2019년부터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2월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정하영 시장은 지난 6월부터 경기도 행정 2부지사, 평화부지사 등과 통행료 무료화 방안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30일 읍면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중에도 경기도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무료화 추진을 최종 조율하기도 했다.

정하영 시장은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는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고양, 파주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심화되는 일산대교 이용자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사)대한교통학회 주최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를 위한 토론회’에서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일산대교를 무료화 할 경우 향후 18년간 약 8000억 원의 실질적인 편익이 지역 사회로 환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출처 김포시 편집 최벽하 기자

교육의 기본은 바뀔 수 없다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교육의 근본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교육은 그 어떤 논리나 사상으로든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던가. 백년을 바라보는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도 있고,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근본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도 더 이상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의 기본은 교육의 최상위 법인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본법은 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따라 하위법령들이 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2조에는 ‘교육의 이념’이 제시되어 있다. 1949년 최초로 입법된 이래 이념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교육이념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가 있었다.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홍익인간을 없애고 ‘민주시민’을 넣자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교육계와 종교계, 사회시민단체 등이 반발에 나섰고, 이에 따라 자진해서 법안 발의를 철회하였다. 이처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교육의 기본을 흔드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문이다. ‘홍익인간’은 삼국유사의 ‘기이편’ 단군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개념이다. 고조선의 건국이야기인 단군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국조신화로 그 가치와

위상은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개인의 행복을 넘어 공공의 이익과 세계 평화와 공영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멋진 개념이 아닌가. 우리 헌법의 전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으로 이러한 가치를 구현한 가장 적합한 개념으로 ‘홍익인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원들 간의 논의도 없었다고 하며, 교육위 간사(더불어민주당)의 검토도 없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헌법을 뒤흔들라고 국민이 180석을 주었나 하는 마음에 자괴감마저 들었다. 이번에는 법안 철회와 함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교육의 근간을 언제든 다시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교육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절대 다수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률을 함부로 바꾸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이 바뀐다는 것은 이에 따르는 하위법령이 바뀌고 수반되는 정책들이 모두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법률을 바꿀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몇몇 개인과 단체의 생각을 가지고 법을 바꾸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정쟁의 도구도 권력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교육은 대대적으로 혁신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성격을 만들고 인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에 신중하고도 서서히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국가 발전의 동력마련에 있어야 한다. 부디 정치인들이 교육까지 우지좌지 하려고 들지 말고 교육은 교육자들에게 맡겨 두기를 요구한다.

교육은 백년대계

어린이의 미래와 안전을 가꿔가는 강화군

강화군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북부키즈카페” 조성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재미있게 키워나갈 수 있는 ‘북부키즈카페 조성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아동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키즈카페 조성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유천호 군수는 놀이기구, 편의시설 등의 배치계획, 안전계획 및 운영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이어 보육 관계자들로부터 어린이 눈높이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모험심, 도전 정신, 상상력을 재미있게 키워나갈 수 있는 시설 배치와 운영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유천호 군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키즈카페를 실수요자인 어린이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상상력과 창조력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 되도록 시설들을 배치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부키즈카페 조성사업’은 강화읍 남산리에 건설 중인 강화군 행복센터 1~2층에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상반기 정식 운영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끄럼틀, 트램폴린 등의 신체 놀이공간, 병원·뷰티샵 등의 역할 체험공간 등을 조성해

어린이들의 상상을 자극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된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도 생활 속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뛰어 놀며 상상력을 키우고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아이가 행복한 강화군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강화군 편집 최백하 기자



훈훈한 세상



김산석 영양보호사

2010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복지 센터에 노크를 했다. 사는 집과 근무하는 수급자 어르신 집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인지 출근 길은 늘 조마조마하다. 혹시 차 시간이 늦을까? 오늘은 왜 이리 느리게 갈까? 도착 장소가 눈에 보아야 큰 한숨을 쉰다. 어떤 날은 빨리 도착해서 도시락 가방을 들고 그 부근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갈 때도 있다.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불편한 점을 케어하는 이 일에 참 보람을 느낀다. 감사하다. 나의 부모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 더 몸이 바빠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곳 이런 길을 걸을 텐데 하며, 어르신들을 보면 나의 거울같은 생각이 든다. 화이팅!! 어르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김산석 영양보호사는 개인 간병으로 시작하여 영양보호사라는 국가자격증 취득으로 연결되면서 시급 경쟁으로 이직이 심한 직업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 입사한 복지센터에서만 10년의 경력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많은 강화 지역은 시급 경쟁과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예고없는 근무중단으로 인한 제도의 한계와 교통편 때문에, 재가에서 근무할 영양보호사는 늘 부족하여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휴무인날 재가센터에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로 시설에 피해가 갈까봐 눈치를 보면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산석 영양보호사의 입사는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10년전 김포시 양곡에 거주하면서 교통이 아주 좋지 않은 지역 독거

노인을 위하여 버스를 타고 강화 초지대교를 지나 화도면 흥왕리, 여차리,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까지 환승에 환승으로 출퇴근을 하며 버스를 놓친 날은 남편이 양곡에서 흥왕리까지 오토바이로 데려다 줄 정도로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노인의 건강상태나,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해도 단 한번도 수급자 어르신을 거부한적 없고, 근무지 교체를 원한적없이 “멀긴 해요.”라는 답변만 남기고 다 해결하며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만난 어르신들의 돌발적 치매 행동을 감당해 내는 동안 폭력도 당할뻔 하고, 던진 유리조각에 발에서 피가 나고, 물건이 없어지면 도둑으로 **년아 하며 가라고 무섭게 내쫓겨도 그 상황을 보고 그냥 갈수 없어서 어르신 집 근처나 울타리 숲뒤로 숨어서 지켜보며 상황이 잠잠해진것 같으면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왜 이제 오냐고 반기시는 치매 어르신들과 웃고 울던 시간들을... 어르신의 가족들은 알고 계십니다.

현재는 수발하던 어르신이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산길을 걷는 게 위험해서 다른 근무지로 변경을 해준다고 하여도 “해보고 안되면 말 할게요.” 어르신 상황에 의한 근무중단과 시급 유혹에도 관여치 않고 어려운 근무중단 후 잠시 쉬라고 급여를 충당해주겠다고 하여도, 피곤이 쌓여 입술에 진무름이 있어도, 한번도 그런걸 바라지 않고 실름이 없이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명절 전날이면 독거노인을 위해서 명절 전이라도 드시게 하려고 음식 솜씨가 있으신 분을 알선하여 인건비를 별도로 드리며 명절 음식 준비 및 독거노인 근무를 요청하면, 다들 명절 준비로 거절할 때 며느리로서의 집안일도 벅찬데 시간을 쪼개어 “네 알겠어요.....” 이 한마디에 보답코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 약속, 외로움을 기다림으로 채워가는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의 식사·수발을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버스를 놓치거나, 근무자가 갑작스런 상황으로 결근할 경우 대체근무자에게 사비로 장거리 택시비를 지급하며 헌신한 센터였기에 장기근속하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매년마다 시급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신체상황, 근무지 환경, 교통편을 감안하지 않은 시급 경쟁의 이직보다 양보와 미덕의 선행으로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며 도시락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는 훈훈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과 거리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에 요양보호사는 늘푸른 소나무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어르신 지킴이가 되어 드릴것입니다. 최벽하 기자

건강참살이 시금치보다 2배 이상의 철분 함유

깻잎의 영양 및 효능

깻잎은 철분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로 빈혈을 예방하고 성장기 아동의 발육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금치보다 2배 이상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깻잎 30g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철분 양이 모두 충족된다.

또한 식물성 플라보노이드의 종류인 루테올린(luteolin) 성분을 함유하여 체내 염증 완화, 항알레르기 효과, 기침이나 콧물, 재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깻잎에 있는 항암물질 피톨(phytol)은 암세포와 병원성 균을 제거하여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글 최벽하 기자

깻잎 활용 방법

용도	활용메뉴
생채, 냉채, 샐러드	쌈 채소, 깻잎겉절이, 각종 냉채 및 샐러드의 부재료
숙채	깻잎순 나물
찜, 조림	깻잎 양념찜, 깻잎 멸치조림
전, 튀김	깻잎전, 깻잎튀각, 깻잎부각
김치, 장아찌	깻잎김치, 깻잎장아찌





해뜨는 집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374
MUSIC CAFE M. 010 6262 6511 | 010 4510 3197

032) 933-3232



대표 김 형 식

정관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 1층
(강화점) M. 010 5313 3368 T. 032) 933-2304

-강화-내가-길상도서관- 확대 개방 운영 안내
-9월 3일부터-

	운영시간	비고
강화 어린이자료실	(평일) 09:00~20:00 (주말) 09:00~18:00	【휴관일】 강화: 월 / 내가: 금 길상작은도서관: 토·일
강화 종합자료실 내가도서관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길상작은도서관 (월~금) 09:00~18:00
강화 청소년·일반열람실	(평일/주말) 09:00~22:00	

생활 속 거리두기
통과석의 50% 이용
마스크 착용 준수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거리두기를 위해
좌석 건너뛰기로
좌석 예약 제한

(교통·하점·화도작은도서관 휴관)

문의 강화도서관 032)932-8264
내가도서관 032)934-1528
길상작은도서관 032)937-7975
홈페이지 <http://lib.ganghwa.go.kr>

주민자치센터
개발사업에
맞춰
운영 예정



대표 신 석 호

月光산업개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 3층
(토목·건축·시공상담) M. 010 2432 3872 T. 032) 934-7299

2021년 강화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안내

9월은 독서의 달 "늘 두배로 데이"

기간 2021. 9. 3(금) ~9.30(목)

장소 각 자료실

대상 강화군내 도서관 회원

내용 1인당 대출권수 10권으로 확대

강화도서관 문화강좌 시예&문인화 작품 전시회

날짜 2021. 9.12(일) ~9.26(월)

장소 강화도서관 1층 로비

대상 강화군민, 강화도서관 이용자

고백(Go Back)

기간 2021. 9. 3(금) ~9.30(목)

장소 각 자료실

대상 도서 연체회원

내용 연체자 도서 반납 시, 즉시 대출정지 면제 (기간내 반납자에 한함)

문의 032)932-8264

삼성인쇄광고기획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 강화경찰서 앞)
T. 032)934-7778 F. 032)934-7772